

평국전 칼럼

(고3/14수)전문

2016 평국전 칼럼3
제시문 분석 기본
<비문학-병렬형>

은 필국 어논스 수능국어를 정복할 논리/논술실력을 위한 완벽한 관리

경기도 일산동구 마두동 / 070-7653-3628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장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2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2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받아들인
- ② ㉡: 일어나지
- ③ ㉢: 밝혀내기
- ④ ㉣: 지나치게
- ⑤ ㉤: 아우를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장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2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2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받아들인
- ② ㉡: 일어나지
- ③ ㉢: 밝혀내기
- ④ ㉣: 지나치게
- ⑤ ㉤: 아우를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장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2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2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받아들인
- ② ㉡: 일어나지
- ③ ㉢: 밝혀내기
- ④ ㉣: 지나치게
- ⑤ ㉤: 아우를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장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2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2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받아들인
- ② ㉡: 일어나지
- ③ ㉢: 밝혀내기
- ④ ㉣: 지나치게
- ⑤ ㉤: 아우를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장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2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2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받아들인
- ② ㉡: 일어나지
- ③ ㉢: 밝혀내기
- ④ ㉣: 지나치게
- ⑤ ㉤: 아우를

<비문학 분석>

적용사례: <2015학년도 6월 B형 21~24번>

1. 제시문 분석

<핵심어 분석>

%%각 번호는 문단 순서

①정합적이다의 세가지 정의

독해시 생각>

명제가 정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하는데, 세가지 형태로 일단 병렬 형의 끼어 있겠군.

② 모순없음으로 정합적을 정의

독해시 생각>

일단 `모순없음`으로 정의되는 경우의 단락이 나왔군. 다음단락에 함축과 설명적 연관`이 있으려나 있군. 구조는 거의 나왔네. 나중에 마지막단락을 통해 완전병렬인지 아닌지만 파악하면 될거고. 지금은 각 방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이해가 안되면 표시하면서 넘어가야겠군.<글은 길지만. 머릿속 생각은 0.5초도 안되는 시간에 지나간다.>

팁)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중요도는 최우선이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대상과 화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본인이 규정한 대상과 화제를 설명하는 구조에 대한 예측이 맞는 지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정합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병렬적으로 세가지 설명하나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미 모든 문제를 풀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내가 제시문에 대한 세부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유범위

의 제한완화(다른칼럼통해 정리), 병렬형 문제의 배분방식을 통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다. 이는 평가원 국어 문제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평가원 문제가 논리적으로 문제의 배분과 답안 구성 발문의 선택까지 완전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③ 함축'으로 정합적을 정의

독해시 생각>

모순없음으로 정합적이다의 기준을 삼으면 너무 많은 관계가 참이 되니까. 뭘 함축하면 서로 참이구나. 누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함축이구나. 그러면 모순이 없다고 해도 함축을 기준으로 하면 모순이 없다고 모두 참이 되지는 않겠구나.

팁) 사실 함축의 의미를 사례까지 순간적으로 모든 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한번정도 더 생각해보고, 다음단락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④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을 정의

독해시 생각>

그렇다고 함축으로 정합적이다를 기준으로 삼으면 함축관계가 아니면서 참인 관계가 제한되니까. 그럴듯하게 설명만 해주면 둘이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구나. 설명적 연관'은 함축'을 포함할 수 있겠구나. 함축되면 그래도 그럴 듯 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⑤ 설명적 연관'의 문제점

독해시 생각>

어? 어떤 것이 가장 정합적이다를 정의하는데 적합한지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군. 이건 완전병렬형으로 볼 수 있구나. 문제수가 네 개니까. 병렬형 문제 배분의 원리로 해법을 찾으면 되겠구나.

<핵심어분석>

정합적이다의 세가지 정의

~정합적이다는 모순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으로 설명된다.

<구조분석>

글의 구조는 필자가 글에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하는 핵심어를 잘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서술의 방식입니다. 이를 파악하는 것은 필자의 의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험생들의 머리 속에 필요한 내용만이 남게 됩니다. 평가원 제시문의 구조는 크게 주조연형과 병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조연형은 개념확장형과 안긴 병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칼럼을 달리하여 자세히 사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독해시 생각>

정합적이다.'에 대해 세가지로 정의를 단순히 설명하고 있는 글이군.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은 기본적 표시(칼럼을 달리하여 연습)등을 해두고, 읽어내야겠다.

.글의 구조는 병렬형이군. 독해중에 ②단락인 '모순없음'에 네이밍이 있어 나머지 문제들은 '함축'과 '설명적 연관'에서 답을 구성하겠군. 표시는 이유범위의 제한을 기준으로 표시해두어야겠군.

정리하면 핵심어를 분석해서 핵심문장을 작성할 때 필자가 내고자 했던 효과(구조)를 반영하여 결론을 낸다. 즉 글의 구조가 드러난 주제문을 만들어 낸다. 이를 이후에서부터 킬문장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핵심어 분석과 글의 구조분석을 통해 우리는 킬문장을 만들 수 있다.

K(킬문장)=K문장=K'로 언급

정합적이다라는 판단의 기준은 두명제의 관계가 '모순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2. 발문&선택지 분석

발문 분석'은 'K문장'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문제에 반영되는 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원에서 내는 비문학 독해의 경우, 제시문을 읽고 머리 속에 남는 내용과 문제에서 구성된 답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머리 속에 글을 읽고도 남지 않는 부분은 네이밍을 통해 문제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문분석은 단순한 문제유형분석이 아니라 **제시문 독해시 문제를 예측하는 논리를 찾아내어 구조독해의 당위성을 더해주는 귀납적 작업입니다.** 당연히 기출의 유형은 정리해야 하지만, 변별력은 신유형에서 나타납니다. 제대로 된 발문분석을 통해 본

질은 같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발문 분석의 핵심입니다.

선택지 분석은 우리가 `킬문장`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킬문장으로 정답인지 오답인지 구분이 어려웠던 첫 번째 문항의 ①~④과 같은 선택지들을 어떻게 대처할 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원 문항 중에 그런 경우는 역대 20년 수능 중 딱 1문제(제 개인적으로는 문제오류라고 생각합니다만) 선택지 적용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또한 모의고사여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는 내가 분석해야할 선택지를 15문항*5개=75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15문항*1개~2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결국 문제풀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올리기 위한 복안을 만드는 것이니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발문 분석과 선택지분석 적용>

이번 제시문은 완전 병렬형의 형태입니다. 병렬형의 발문은 각 개별 단락의 단문독해를 시키는 형태로 모순없음과 함축, `설명적 연관` 세 개의 의미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떤 의미단락도 우위에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각 단락별로

1번 문항 <정답률 70% 매력적 오답 ③>

<함축을 핵심어로 답을 구성한 문제>

2번 문항에서 네이밍을 통해 ②단락의 `모순없음`을 문제와 답으로 구성했으므로, 나머지 문제들은 `함축`과 `설명적 연관`의 이해를 통해 문제를 구성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글의 구조를 통해 먼저 파악할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함축`이라는 용어와 `설명적 연관`이라는 핵심어에 민감하게 선택지를 파악해야한다. 제시문의 순서상 `함축`이 `설명적 연관`이라는 핵심어 보다 우위에 있기에 선택지에서 `함축`=>`설명적 연관`=>`모순없음`의 순서로 선택지를 파악하면 된다. 선택지의 구성을 보면 선택지의 분석 순서는 ④=>⑤=>③=>①=>② 의 순서로 분석해 보면 된다. 이번 문제의 경우 선택지의 순서대로 ④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다.

팁)④번 선택지에 대한 분석과 독해시에 4번선택지를 문제에 먼저 표시할 수 있는 법

④번 선택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여러분은 제시문에서 ④번 선택지를 맞는 선택지나 틀린 선택지로 정하게 된 근거가 되는 제시문의 문장을 찾아서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그 문장이 답이 된 이유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함축관계`에 관한 개념적인 내용만 머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선택지의 맞고 틀림을 확인하기 위해 병렬형에서는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뇌구조가 사진기처럼 찍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런 능력은 결정적인 경우 배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대체 형광펜 표시한 문장을 왜 답으로 구성했을 지에 대한 논리적 이유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위치상으로 병렬형 단락의 하단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유범위의 제한` 혹은 `완화`라는 용어로 제가 칭합니다. 향후에 다시 설명할 예정이니 우선은 위치상으로 단락의 후반부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필자가 강조하고 싶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글의 필자는 `명제의 관계가 정합적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방법들이 명제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지는 특징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각 방법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맞게 쓰거나 틀리게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정합적이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을 판단하는 근거로 썼을 것입니다)

그럼 4번 선택지의 위치를 제시문을 펼쳐 놓고, 형광펜을 칠한 부분을 보기 바랍니다. ④함축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없는 명제 들일 수는 없다.**

④번 선택지에서 틀린 부분은 `모순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1. 모순`의 정의 `모순단락`
2. 함축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
3. 함축은 A가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는 무조건 참이다.=>이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될 수 없다는 모순의 정의에 위배되므로 함축은 모순 없음`이 기본이 된다.

이것인데, 글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머리 속이 빙빙 돌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④번 선택지가 답일 확률이 가장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이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칼럼 장을 달리하여 설명)

팁) 1번 문제는 정답률이 70%로 등급을 구분 짓는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정답률이 50%이하의 문제는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교우위를 만들어 주는 문제라 이해하면 됩니다.

꽤 많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네이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기는 현

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제시문의 1번문제와 3번 문제는 2번문제의 '모순'의 정의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푸는 문제입니다. '모순'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명제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평가원 문제에서는 '네이밍'이 ㉔로 되어 있어 먼저 2번문제를 풀어내야합니다. 이는 제시문을 읽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이밍이 문제를 푸는 순서 중 제시문=>문제 순서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해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번에서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함축과 '설명적 연관'은 기본적으로 '모순없음'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은 네이밍을 통해 2번 문제를 먼저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

1번 문제를 풀면서 이전의 팁)에서처럼 주연과 관련된 답에 대한 구분만 하여 수능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 ①~⑥번 선택지를 제시문에서 찾고 그 정오를 구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①번 선택지부터 구분을 한다면

- ①선택지는 첫단락에
- ②선택지는 첫단락에
- ③선택지는 두,세 번째 단락에
- ④선택지는 세 번째,네번째 두 번째 단락에
- ⑤선택지는 다섯 번째 단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오답풀이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지의 부분이 그 단락에 있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그 선택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단락에 있는 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제시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푼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다시 제시문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없애고, 4번선택지를 답으로 하거나 처음부터 4번 선택지를 답으로 해야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번 선택지를 먼저 고를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그렇게 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고민해야합니다. 또한 그 방법이 단순히 문제 흐름에 맞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절대적으로 연습해야합니다. 즉, 제시문 분석시에 이미 병렬형을 예측했다면 그리고 2번 네이밍 문제를 보았다면 1번문제는 선택지 답안의 핵심어가 '함축'에 있다는 것을, 3번 문제를 보았다면 3번 선택지 답안의 핵심어가 '설명적 연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2번 문항<정답률 75%>

<네이밍 문제:모순없음 단락>

저도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단순히 모순관계와 반의관계를 구분하고자 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문제의 정오를 구분하기 위한 기본적 배경지식을 만들어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순없음은 `모순`이라는 정의를 이해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원은 보았던 겁니다.

모순과 반의의 관계는 쉽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두명제가 제외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키가 크다와 키가 크지 않다'는 모순관계이지만. 키가 크다와 키가 작다는 키가 같다'라는 등호 성립의 경우가 있어 반의관계입니다.

3번 문항<정답률 75%>

<설명적 연관을 묻는 문제>

1번 문항을 통해서 `함축`을 핵심어로 담고 있는 선택지가 답임을 확신했다면, 우리는 3번 문항이 `설명적 연관`을 핵심어로 담고 있는 선택지가 답임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선택지 ③과 ⑤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③ 그럴 듯한 것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설명적 연관의 기본 정의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게 진짜 맞는가? 내가 잘 생각한건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는 힘들 것이다. 이때 우리가. ④번 선택지를 본다면 이러한 생각들은 정리가 안된 상태로 지나가게 된다. ③에서 ⑤로 이동하여 선택지 관리를 할 때, ⑤번 선택지는 우리동네 전체에 우리집이 포함된다는 함축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네 번째 단락 `설명적 연관`부분에서 `함축`은 필연적으로 `설명적연관`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단락 후반부(이유범위 제한에 해당하며, `강조어:필연적으로/ 때문이다`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평국전 용어정리) 네이밍

수능에서는 네이밍(제가 칭하는 용어임)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다가 네이밍 부분은 그 의미문장이나 단락 정도를 읽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라는 문제 풀이솔루션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묻는 항목으로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밍은 보통 밑줄, 사각형박스, 굵은 문체, ㉠, ㉡, <제 1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문학과 문학 문제는 제시문을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원의 문제를 보면 네이밍 작업을 따라가면 답을 찾아내는 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셋트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적 힌트가 깔리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